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

최지녀**

- I. 서론
- II.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
- III.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우리 고소설에 등장하는 동성혼(同性婚)은 주로 여성과 여성의 혼인을 핵심으로 하는 화소(話素)로, 남장 여성과 다른 여성이 일시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미완(未完)의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혼 화소는 여성 영웅소설 계열의 작품과 일부 가문소설에 자주 보이는데, 특히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의 세 작품에서는 동성혼 화소가 작품의 분량 및 서사 전개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작품에 등장하는 동성혼의 소설적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성혼의 주인공인 여성들은 뚜렷한 주관, 준수한 외모, 문무(文武)의 실력 등을 갖춘 인물로서 동성혼을 통해 주체성을 발현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둘째, 동성혼은 두 여성의 친밀한 관계를 한 남성에게 귀속시키는 기능을 하여 일부다처를 합리화한다. 다만 <방한림전>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동성혼은 가부장제의 바깥에서 남성과의 결합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셋째, 앵혈이라는 상징물은 동성 간의 결합에서 성애를 소거함으로써 당대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강의전담교수

독자의 윤리적 감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 작품은 동성혼 소재의 활용 정도, 주제의 진취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의 순서로 계열을 이루고 있다.

핵심어: 동성혼,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 앵혈, 남장, 여성영웅, 우정, 동성애, 가부장제

1. 서론

동성혼은 우리 고소설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동성혼이라는 말은 남성과 남성의 혼인, 여성과 여성의 혼인 모두를 포함하겠지만 고소설에서의 동성혼은 주로 여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설에서의 동성혼은 여성과 여성의 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화소(話素)라 할 것인데, 실상은 남장(男裝) 여성이 다른 여성과 일시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남성으로 가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의 ‘미완(未完)의 혼인’과 관련된 화소라고 할 수 있다.

남장이 서사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의 경우, 남장을 한 여성은 대개 외모와 능력이 출중한 선망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므로 동성혼 모티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동성혼의 양상과 작품 내에서의 비중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혼담이 오가는 수준에서 그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작품도 있다. 또 타의에 의해 혼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장이 서사 구조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여성영웅소설 계열의 작품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문소설 및 애정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창선감의록>, <홍백화전> 등과 같은 작품에도 동성혼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지금까지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에 관한 연구는 <방한립전> 한 작품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방한립전>이 동성혼의 완결된 형태를 보여주는 문제작으로서, 동성혼이 작품의 결구와 의미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방한립전>의 동성혼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연구의 초기에는 방관주와 영혜빙 두 주인공의 관계를 ‘지기’(知己)로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후 두 사람의 동성혼을 은닉된 동성애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이 등장하였다.²⁾

<방한립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관점의 확장을 이루어 온 것과는 달리 <방한립전>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고소설의 주요한 화소 가운데 하나인 동성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야를 넓혀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한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을 고찰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작품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은 어떠한지, 동성혼이 작품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동성혼이라는 소재를 제약하는 윤리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이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동성혼이 작품의 분량 및 서사 전개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의 세 작품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³⁾ 기존 연구에서 세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 간의 관계를 그 ‘속성’에 주목하여 주로 ‘우정’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과는 달리 본고의 관심은 이들의 전반적인 ‘결연 양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 아래에서는 세 작품에 나타나는 동성혼의 실상을 밝히

2) <방한립전>의 두 주인공의 관계를 ‘지기’로 보는 관점을 취한 연구로는 장시광,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제6집, 국문학회, 2001;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31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의 동성혼을 은닉된 동성애 관계로 이해하는 관점은 김정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립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립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조현우, 『<방한립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이지하, 『육관주체로서의 방관주와 자기에의 미덕: <방한립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모색』, 『국제어문』 제82집, 국제어문학회, 2019 등에서는 동성혼에 대한 의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관주의 성적 정체성을 단일한 여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봄으로써 두 주인공의 동성혼을 동성애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3) 본고에서 다룰 세 작품을 함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김나혜, 『<방한립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제36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에서 <방한립전>과 <부장양문록>의 주인공을 비교분석한 논의가 참조되나, 이는 동성혼에 관심을 둔 연구는 아니다.

4) 세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의 관계를 ‘우정’으로 해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최윤희,

공통점을 추출하고, 동시에 각 작품에서 동성혼이 가지는 기능 및 주제의식에 기여하는 바를 대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소설에서 동성혼 화소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

고소설에 나타나는 동성혼은 ‘복장전환’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에서는 동성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소설 속에서는 동성(同性)인 남자가 어느 한쪽의 복장전환을 통해 이성(異性)의 한 쌍이 되어 혼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은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 남장 또는 여장을 한 인물의 본래 성별(性別)이 공개되면서 혼인 혹은 혼인의 시도는 해소(解消)된다. 따라서 소설 속의 동성혼은 대개 ‘미완성’으로 남게 되며 성별을 숨긴 인물의 정체(正體)가 공개되는 시점에 따라 그 분량과 서사적 비중(比重)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동성 간의 미완의 혼인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는 화소를 동성혼 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혼(議婚), 정혼(定婚), 빙폐(聘幣), 혼례(婚禮), 동거(同居), 해로(偕老) 등 다양한 혼인의 단계를 포함한다.

고소설의 동성혼은 주로 여성 간의 혼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영웅소설과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남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동성혼 화소로 이어져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성의 여장은 그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거니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단편적이고 유희적(遊戱的)인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구운몽>의 양소유는 정혼자인 정경패를 엿보기 위해 여장을 하고 연회장으로 가 일종의 음물 대결을 벌이는데 이는 호기심에 이끌린 짓곳은 장난에 불과하다. 여장을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혼인을 둘러싼 사건을 벌이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홍백화전>에 나타난 인물 관계와 우정』, 『우리문학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의 변모』, 『관악어문연구』 제2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채윤미, 『<복장양문록> 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 ‘복장전환’은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의 번역어에 해당하며 남장과 여장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복장전환 화소의 유형과 효과 및 의미에 대해서는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참조.

이 또한 진지함과 거리가 멀다.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이 엄세번과의 혼인을 거짓으로 도모하는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급히 좋은 날을 가리셔서 예를 갖추시고 쌍봉관(雙鳳冠)을 제 머리에 씌워주신다면,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부부의 즐거움을 사양하겠습니까?” 엄세번이 말했다. “그대의 고집이 심하오. 내가 이미 일관에게 시켜 날짜를 알아보았는데 좋은 날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나흘은 더 있어야 하오(…)”⁶⁾

윤여옥은 화춘과 장한이 자신의 누이이자 화진의 아내인 윤옥화를 엄세번의 아내로 만들려하는 계락을 알고 여장을 한 채 엄세번의 집으로 들어간다. 엄세번은 상처(喪妻)한 후 미인을 처로 구하던 중언바 윤여옥의 미모에 반하여 즉시 합방을 원하지만 윤여옥은 격식을 갖춘 혼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 여장을 한 남성과 다른 남성이 대면하여 혼례 일정을 의논하는 위의 장면은 남성 간의 혼인이 언급되는 드문 예에 해당하며, 윤여옥이 엄부(嚴府)를 몰래 빠져나감으로써 혼인이 무산된다는 점에서 동성혼 화소의 성격을 얼마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윤여옥이 엄세번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택일(擇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조롱이라고 할 수 있어, 여성 간의 동성혼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이어 살피겠지만 여성 간의 동성혼은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지만 책임감과 진지함을 수반한 사건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상이 청주후[정수정]를 인견하사 왈 “짐이 한 공주 잇스니 경으로 부마를 삼노라.” 수정이 하교를 드르매 혼비백산하여 복디 주왈 “시의 미천하온 몸으로 엇지 금지옥엽과 짝을 하오릿가? 만만 불가하오니 성상은 하교를 거두사 신의 마음을 편케 하소서.”⁷⁾

(2) “남즈 세상의 처호야 혹업을 공부호야 티평시절의 과거을 당호야 힘써 과거을

6) 작자미상, <창선감의록>, 이지영 역, 문학동네, 2010, 159~160면.

7) <녀장군전>(정수정전), 世昌書館, 1916, 496면.

보아 십[입]신양명호고 영화로 도라와(…)나난 박복하야 일직 가군을 여히고 또한
다은[른] 자식이 업고 다만 혼낫 여식을 두어시되 속히 공즈의 건질을 밧쓸만하이
 여아와 혼스를 일우지 못호고 공즈 오날 황성으로 췌난디 원커던 공즈난 너의 마음
 을을 저바리지 못호고 철리 원정의 무스이 득달하야 과거을 축실이 보고 슈이 도라
와 혼인을 일우게 하라. 공즈 디왈 “소지 일즉 부모을 여히고 혈혈단신의 의탁이
 업써 수헐팔방을 단여 정처업삽디이 마춤 부니 덕턱으로 조문의 의탁호엿스오니
 이디지 말숨하시이 부인은 전상의 부모런가(…)황극 감스호압거늘 엇지 사양호을
 잇가? 슈이 도라와 뵈오리다.”⁸⁾

(3) “명턴이 살피스 영웅을 지시하시니 이제 그디를 바리고 누를 취호리요? 바라
 건터 김히 생각호여 노부의 간절호 정을 저바라지 말느. 또한 그터 쌍친이 구물하
 시고 일신이 고단하디 후시 느껴가니 일윤에 엇지 무심호리요? 청컨디 쾌히 하락
 호여 부모의 제스를 밧들고 단신을 위로하라.” 소제 츤언을 드르미 정신이 아득호
 고 괴운이 저상호여 능히 답지 못호고 침음양구에 왈 “소지 부모 심시의 밧세호을
 기를 공명을 일우기 전에는 가취를 아니려 호얏스니 천지 귀신이 임의 아는지라
 이러흐오로써 불감호으나 디임의 명교를 밧드지 못호오니 황공무지호여이다.” 참
 정이 츤언을 듯고 잠잠하다가 이에 혼연 디왈 “일이 여츄할진디 또한 쉽다 년즉
 그터 급제도 장중에 잇느니 노부에 뜻줄 조찰진디 아직 초레만 형호고 득의호 후
성례호미 엇더하요” 소제 민망호여 낫빋출 곳치고 갈으디 “성교 맞당호으나 또한
 마음을 속이미라 납치하오면 피츠 부부라 엇지 성례 아니라 호리요?” 말숨이 준절
 호고 네의 능열호니 참정이 가장 올히 너게 칭찬 왈 “노부의 강청호는 비 그디의
공명을 직축호미러니 스세 그러하면 강권치 못호련이와 급제 후는 노부의 뜻줄
 어귀오지 말나.” 소지 이러 직비 왈 “명교디로 봉형호리이다.”⁹⁾

(1)은 <정수정전>의 이본 가운데 하나인 <녀장군전>에서 주인공 정수정
 이 부마로 간택(揀擇)되는 장면이다. 작품에서 정수정은 준수한 외모의 인물
 로, 장원급제 후 북방 오랑캐를 섬멸하여 청주후의 자리에 오른다. 정수정은
 겉으로는 최고의 신랑감이지만 실상 여자이기에 부마로 간택된 사실에 크게
 놀라고 당황하며 이를 거절한 방도를 궁리한다. 그리고 혼인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자 ‘본적’을 밝히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¹⁰⁾ <녀장군전>에서

8) <이대봉전>, 박순호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39, 昨晟社, 1986, 33~34면.

9) <김희경전>,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219면.

10) “루수방방하더니 문득 생각하되 맛당히 표를 올려 본적을 알외여 죄를 면하리라.”(<녀장

와 같이 공주와의 혼담은 남장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지존(至尊)을 속이고 혼인에 이르는 행위는 작품에서 용납되기 어렵기에 공주와의 혼인은 혼담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산된다.

(2)는 <이대봉전>에서 조씨 부인이 자신에게 의탁하여 지내던 장아황에게 딸과의 혼인을 제안하는 대목이다. 장아황은 과거 응시를 앞두고 있는데, 입신양명하고 영화로이 돌아와 딸과 혼인하라는 말에서 조씨 부인이 아황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과거 급제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 급제 전의 남장 여성 또한 훌륭한 신랑감으로 여겨져 조력자의 딸 또는 고관대작의 딸과 혼담이 오가게 된다. 공주와의 혼담이 남장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부득이한 계기가 된다면 조력자의 딸과의 혼담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덜 긴박하다. 장아황은 혼인을 흔쾌히 승낙하고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는 과거 급제가 혼인의 조건인 동시에 집을 떠나 혼인의 압박을 벗어날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곧 과거 급제 이전에 발생하는 조력자의 딸과의 혼인은 과거 응시라는 사건을 통해 용인되고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3)의 <김회경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여주인공 장설빙은 생명의 은인인 이참정의 딸 이소저와의 혼인을 제안 받지만 이를 과거 급제 후로 미룬다. 이참정 역시 과거 급제가 ‘장중(掌中)’에 있다고 표현하고 혼인을 재촉하는바 장설빙의 뛰어난 자질을 파악하고 사윗감으로 점찍었음이 분명하다. <김회경전>의 장설빙은 <이대봉전>의 장아황과는 달리 초레라도 먼저 치르라는 이참정의 말을 승낙하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결국 급제 후에 혼인하라는 이참정의 말을 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에 나타나는 동성혼의 양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¹⁾ 두 작품에서 조력자의 딸과의 혼인은 과거에 의해 지연되고 결국 무산되고 만다. <김회경전>의 이본인 <김상서전>에서 장설빙은 혼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과(落科)하려는 마음까지 먹는다. <김회경전>의 동성혼은 <녀장군전> 및 <이대봉전>에서의 동성혼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

군전>, 496면)

11) <김회경전>은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장편에 속하는데, 혼인을 둘러싼 이참정과 장설빙의 대화가 ‘초레’, ‘성레’ 등의 단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로 언급할 수 있다.

만 혼인이 성사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소저와 장설빙 사이에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능적 차원에서 서사 구조 내로 수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성혼이 여성영웅의 정체를 드러내거나 남자 주인공의 다처(多妻)를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동성혼 자체가 문제적으로 탐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의 동성혼은 이런 점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작품에서는 두 여성 사이의 혼인이 실제로 성사되며, 그 혼인은 천자나 조력자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시도되거나 나아가 실현된다.

<홍백화전>의 여주인공 순직소는 정혼자인 계일지와 혼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일지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소개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성과의 정혼에 나선다. 순직소는 여방언과의 늑혼(勒婚)의 위기를 맞자 용모와 문재(文才)가 뛰어난 설유란을 계일지와 짝지어주려 한다. 순직소는 시재(詩才)가 뛰어난 인물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설유란의 모친 의양군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은 시를 계일지의 이름으로 의양군주에게 보낸 후 직접 찾아가 혼인을 성사시킨다. 남장한 순직소를 만난 의양군주는 크게 흡족하여 바로 납폐(納幣)하려 하고, 순직소는 이를 무조건 거절하기가 난처하여 가진 물건으로 폐백을 하게 된다.

순소저 일변 생각호니 일향 고집 난쳐호고 수일 유련호엿다가 폐백이나 드린 후에 과거본다 칙탁호고 탈신히여 가난거시 승척이라 호고 스세 부득 허락호여 화원에서 거처호나 남즈 의복 남감이요 종적혈노 조심쳐라 금은 빈혀와 유옥지 환이 업실거션 아니로디 여자 형중 수승호여 단유석 벼루 혼불과 빅옥스즈 연적과 청옥 필승 혼불 세 가지로 납폐호니 군주 바다 깃거호여 소저으게 보니어 왓 “이거션 문방 소용 긴절호고 담박 물건 보비로다 금은치단 무언호리 빅언 폐백 가홀호다.” 설소저난 김분 마음얼 금치 못호더라(…)군주 깃거 더답호디 “명일은 일월 솟일 더길호니 다시 턱일 무엇호랴?” 명일 형에 완정호즈 혼례 절츠 즉시 츠려 그 잇흔날 형예할 세 높이 안즈 팔인교요 덩터궁 선악소리 전후좌우 웅위호니 위풍이 늑늑호고 금수보중 펼쳐스니 향풍이 진진이라 취향각에 올라가서 설소저와 교비할시 부선귀빈 서답일빈 청홍수를 슬피 여겨 솟비주로 왕니호며 월노술을 먹진 후에 신방으로 좌정할 시¹²⁾

순직소는 거듭 납폐를 요구하는 의양군주의 청에 못이겨 가지고 있던 물건 가운데 남성의 소지품으로 여겨질 만한 벼루와 연적, 붓걸이를 폐백으로 내어 놓는다. 명분을 내세우며 납채를 결국 거절한 <김희경전>의 경우와는 달리 <홍백화전>에서는 폐물이 전달되었고, 의양군주는 이를 바로 설유란에게 보내는데 이는 혼인이 단계적으로 진전됨을 의미한다. 순직소가 잠시 머물러 폐백을 한 후 과거를 핑계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정수정전>, <김희경전>과 같이 조력자의 딸과 정혼한 여성의 행동 패턴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양군주가 자신의 신병(身病)을 이유로 혼례를 빨리 치르기를 바라자 순직소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설유란과 혼례를 치르게 된다. 순직소와 설유란의 혼인은 혼례를 결정한 이튿날에 바로 치러지게 되며, 혼례식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됨으로써 두 여성의 혼인은 작품 속에서 실현된다.

전통시대의 혼인이 대체로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대례(大禮)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녀장군전>, <정수정전>, <김희경전>은 모두 의혼의 단계에서 혼인이 중단된다. 반면 <홍백화전>에서는 사주(四柱)를 교환하며 청혼하는 납채의 단계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례식에 해당하는 대례까지 치르고 일정 기간 두 사람이 부부로 동거하며 생활한다는 점에서¹³⁾ 동성혼이 표면적으로 성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장양문록>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두 여성이 동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 약 1년 동안 동거하게 된다.¹⁴⁾ <부장양문록>의 동성혼이 전개되는 양상은 <홍백화전>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늑혼의 위협으로 정혼자와의 혼인이 어려워진 순직소가 정혼자인 계일지와 다른 여성의 혼인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홍백화전>의 동성혼이라면, <부장양문록>의 동성혼은 여주인공 장벽계가 정혼자 부계와의 혼인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장벽계는 어린 시절 부계와 신물로 ‘금낭’(金囊)을 교환하고 혼인을 약조하였지만 아내의 역할을 거부하며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이다. 전란으로 가족과 헤어져 남장을 하고 생활하던 장벽계는 어머니의 표형(表形) 윤침의 구호를 받게 되고, 이후 그 딸 윤소저와의 혼인을 권유받는다.

12) 김광순 역주, 『숙영낭자전·홍백화전』, 박이정, 2015, 262~264면.

13) “성혼한 지 미기에 즉시 죽별 서오하여 금일명일 지니다가”(〈홍백화전〉, 264면)

14) “참정 윤침의게 길이어 웅서지를 미잔지 회포되여사오니”(미도민속박물관 소장, <부장양문록>권2, 33a); “당후로 금슬위지(琴瑟友之) 현연지 일연이라”(〈부장양문록>권2, 53a)

쇼제 부성의 금낭을 일신의 진여 천익의 유락하나 조끼 몸과 갖치 듯이 역여
 이에 일러더니 혼번 긴 생각이 갑히 밋츠미 윤어스고 금낭을 현왈 “쇼성이 부
 모 주신 배 이 금낭을 초싱 보비를 숨아습더니 빈전한 선배 빙물할 거시 업스오
니 금낭을 전호와 빅연동낙의 증협이 되게호오나 진실노 쇼성의 신세 타인과 다
라와 부모를 찾지 못혼 전은 명교의 죄인이라 부부지낙으로 인윤의 참예치 못
올지니 이 신물을 그음호고 부모의 사싱존망을 아온 후의 형예호여 부부 완취
를 바라나이다” 어스 순순 응낙고 금낭을 가져다가 여으을 주며 곁오더 “네 장낭
 으로 빅연동낙의 문을 충훈 근본니이 갑히 간슈호고 오날노브터 빅영 낭인의 의
 식을 삼가 브즈러니 간검호여 시숙녀조의 혐의를 생각지 말나” 소대 슈괴호여
 홍광이 취지호고 제슈부답이라 이날노브터 가뉘이 당낭이라 이르고 용서의 정
과 인친의 의을 겸호여 더접이 극진호고¹⁵⁾

장벽계는 처음에는 거짓으로 혼인을 수락하고 달아날 궁리를 하지만¹⁶⁾ 윤
 침의 딸이 자신과 전생에 인연이 있음을 깨닫고는 혼인을 받아들여 부계의
 빙물인 금낭을 빙물로 내어놓고, 윤침은 이를 딸에게 바로 전해준다. 여기서
 납제가 이루어지고 폐물이 신부에게 전달됨으로써 혼인이 구체적으로 진전되
 는 것은 <홍백화전>과 같지만 <부장양문록>에서는 장벽계가 부모님을 찾은
 후에 혼례를 치르겠노라고 선언한 때문에 두 사람은 혼례를 바로 치르지는
 못한다. 그러나 윤부에서 장벽계를 사위로 칭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는 사실에
 서 두 사람이 이미 부부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장벽계의 생사를 알지 못했던 부부(夫府)에서는 윤소저를 부계
 의 배필로 삼고자 윤부에 청혼하게 되는데, 마침 장벽계를 못마땅하게 여기
 던 윤침의 아내와 아들은 장벽계를 박대하여 윤부를 떠나게 만든다. 이러
 한 사실을 알게 된 윤소저는 장벽계에 대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납장을
 하고 시비와 가출하고, 우여곡절 끝에 장벽계가 여자임을 알게 된다.

당성니 저의 전고한 형실을 행복بات기 어려울지라 웃고 윤소제의 옥슈을 잡고
 가마니 귀에 다히고 조계 평싱을 그린드시 옮기니(…) “만일 학싱을 잊지 못홀작시
 면 부부 변호여 형제 되어 영육비환을 한가지로 호미 엇더호요”(…) 윤소제 독기를

15) <부장양문록>권1, 18b~19a.

16) “진실노 저와 위곡혼 므움을 저바리기 어려온지라 넌지시 허락호고 도망코져 혼작”(〈부장양문록>권2, 18a)

가를 삼던 공천지한이 홀연 변하여 깃부미 심두의 넘치니 윤소제 당소제 겹히 안지며 늑죽니 고왈 “균일노릇터 쇼제 형의 그림지 되어 사싱을 형의 몸을 쓸을지라 진퇴을 소제 홀노 땡세하여 스라도 한집의 즐기고 죽어도 동향 썩을이 되려 호느니다.” (<부장양문록>권2, 23b~24b)

윤부를 떠난 장벽계는 장벽계의 정체를 모르는 부계와 친교를 맺게 되는데, 우연히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외딴 암자에서 남장한 윤소저를 만나게 된다. 부계가 자신의 금낭을 가지고 있는 윤소저를 장벽계로 오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장벽계는 깨끗함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윤소저를 설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상세하게 밝히고 반신반의하는 윤소저에게 자신의 앵혈을 보여주기도 한다.¹⁷⁾ 그리고 장벽계는 부부가 아닌 형제로 같이 살아갈 것을 제안하는데 윤소저는 한 집에 살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답하며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맹세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어느 한 편 의 기망(欺罔)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숨김없이 아는 상태에서 동거를 결정하게 되었다. 동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순직소를 남성으로 여겼던 설유란과 달리 윤소저는 상대가 동성임을 인식한 후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장벽계가 ‘형제지의’를 내세웠으나 두 사람은 각각 남복(男服)과 여복(女服)을 입은 채로 함께 시사를 창화(唱和)하고 바둑을 두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바 부부의 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혼례의 절차가 생략되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는 공인(公認)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신이 부모를 일습고 영평 고고한 신세로 참경 윤침의게 길이어 웅서지의(翁壻之義)를 미잔지 히포되여사오니 황언이 불승감격호으나 더러운 조취 초방 부귀와 오작이 봉황과 겹짓지 못헐 거시오 버거 황녀 의의와 양혹훈 은혜는 죽어도 저마리지 못할소이다” 상이 놀나시고 조못 채치 못호시나 공신대접은 다른 신하와 달나 뜻결 강박지 못호시고 윤씨로 부인 직첩(職牒)과 고명(誥命)을 나리 오시고 최단금빅을 여러 수리로 상스하시니(<부장양문록>권2, 33a~33b)

이러한 문제는 장벽계가 과거에 장원급제함으로써 해소된다. 17세의 장벽계는 문무(文武) 양과(兩科)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벼슬을 하사받게 되며 천자

17) “그 밋지 아니를 알고 자기 비상 잉혈을 뵈며”(〈부장양문록〉권2, 23b)

는 곧바로 장벽계를 부마로 삼고자 한다. 이때 장벽계는 자신이 윤침의 사위가 된지 일 년 가까이 되었음을 대담하게 발설하여 혼인의 위기를 모면한다. 일반적으로 부마로의 간택은 ‘여성영웅’의 ‘본적상소’로 이어지지만 <부장양문록>에서는 동성혼이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기제가 되어 장벽계가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장시킨다. 천자가 장벽계와 윤소저의 혼인을 알고 공주와의 혼담을 거두어들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확실한 추인(追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윤소저에게 내려진 직첩과 많은 재물 또한 윤소저가 장벽계의 아내로 인정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부계가 장벽계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이 모두 부계의 아내가 되기까지 장벽계와 윤소저는 이러한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 <부장양문록>의 동성혼은 상대가 여성임을 인지한 두 여성 사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천자의 인지와 직첩의 수여라는 사회적 승인까지 획득했다는 점에서 표면과 실질의 양쪽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한림전>은 이에서 또 한걸음 나아가 두 여성이 혼인하고 양자(養子)를 양육하며 평생을 해로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본고의 의도에 맞추어 동성혼이 나타난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1)할임이 괴로오미 극흐나 또흔 혜허리미 임의 남자로 형세흐야 종신(終身)코
즈 흐민 처즈을 두지 아니면 방인(傍人)의 의혹흐리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여을
으더 평성 지기 잇스미 맞당흐나 츠마 스람을 숙여 인윤을 회지오미 어렵고 또
흔 불쵸우인을 만나면 즈가 본스를 누설할가 천스만상흐나 계교업서¹⁸⁾

(2)이런 영웅의 여즈을 만나 일성 지기 되어 부부의 의와 형제의 정을 미즈 일
심을 맞츠미 너의 원나라 너 본더 남즈의 충실이 되어 그 절제을 밋으며 눈섭을
그려 아당흐물 괴롤이 역여 금실우지와 종고지낙을 니 원치 안턴니 우연니 이런
일이 잇스니 웃지 우연타 흐리오(<방한림전>, 19면)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평생 남자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인물로서,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혼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지니

18) <방한림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15면.

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 방관주는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며 남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한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닮았지만 장벽계가 부친의 강압과 설득이 주된 이유가 되어 부득이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성장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1)에서 방관주는 타인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뜻이 맞는 여성과 혼인하고자 하는 대담한 바람을 품지만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지니고 있다. ‘천사만상’(千思萬想)이라는 단어에서 이 고민의 크기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을지, 혹은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를 걱정하는 내밀한 불안 읽을 수 있다.

방관주는 영공의 구혼을 받아 그 막내딸인 영혜빙과 대면하게 되는데 영혜빙 역시 본래 남성과의 혼인을 원치 않았던 인물로서¹⁹⁾ 방관주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한다. (2)에서 영혜빙은 방관주를 ‘영웅의 여자’로 표현하며 함께 평생을 보낼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의 혼인에 대한 거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최초의 만남 이전에 이미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다른 모든 동성혼이 한 사람의 ‘무지’(無知) 상태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방한림전>의 동성혼은 두 사람의 ‘공감’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동성혼이 결국 일부다처 형태의 혼인으로 귀결되는 것과는 달리 <방한림전>의 동성혼은 두 여성의 혼인으로 완결되고 충족된다.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고 양자까지 입양하여²⁰⁾ 며느리와 손자를 두는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의 외피를 모두 갖추게 된다. 이는 동성혼을 소재로 사용한 어느 소설에서도 볼 수 없는 설정으로, <방한림전>의 동성혼은 일반적인 남녀의 혼인과 근사(近似)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 방관주가 호왕(胡王)과의 전투에서 승전하고 돌아오자 천자가 영혜빙에게 진국부인이라는 봉작(封爵)을 내리는 대목은²¹⁾ <부장양문록>의 해당 대목과도 유사한

19) “넉스난 죄인니라 빅스의 임의 님의치 못하야 그 사람의 절제를 맞나이 남아 못될지더 인 윤을 굶치미 울호이라”(〈방한림전〉, 14면)

20) “흐날이 유의호야 특별니 방상셔 추상닐심을 맞참니 후스 미물찬케 흐시미라 상셔와 부인 니 어루만져 귀출노 어듬갓더라”(〈방한림전〉, 35면)

21) “영씨로 진국부인을 봉호시교”(〈방한림전〉, 52면)

데, 이 역시 두 사람의 관계가 최고 권력자의 승인을 얻으며 제도 속에 안착함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평생을 해로한 후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방관주와 영혜빙은 각각 12세, 13세일 때 혼인하여 방관주가 39세일 때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28년을 함께 산 셈이다. 두 사람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설정은 이중적인 감상을 촉발한다. 그것은 “음양을 변하여 임금과 스님을 속이미 그 벌이 읍지 안이리로다”(〈방한림전〉, 62면)라는 방관주의 독백처럼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징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천명으로 도라기[가] 천상의 가 양이니 과연 즐기도다”(〈방한림전〉, 71면)라는 두 사람 사후(死後)의 이야기처럼 동성혼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방한림전>은 동성혼의 문제를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아 형상화하고 실험한 작품으로서, 현존하는 소설 가운데 동성혼이라는 소재를 가장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III.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의 의미

1. 여성의 주체성과 독자적인 세계의 구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간의 동성혼은 ‘남장’이라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남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물리적 활동 범위와 추상적 활동 범위에 대한 사회적 제한의 초월을 상징한다. 여성이 규방 밖으로 나가 ‘벗’과 ‘칼’을 잡아도 된다는 면허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장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1) 칭찬 왈 “글 지언 거시 온조하고 춘일하여 조조이 주옥이요 귀귀이 금수로 다 뉘집 아히 이런 기지 품었던고(…)너의 택서(擇婿)한 법이 문필 용모 두 가지라 그 지조 이러하고 너의 말을 드러보니 용모 문필 홀당이라 문순 의심 또 있스랴?”(<홍백화전>, 257~258면)

(2) 경의 선조 유후(留侯)를 효측하고 용명은 삼국적 관(關)장(張)도운(趙雲)의 지나며 청연(靑蓮)의 문장과 유궁후(有窮后) 레(羿) 스법(射法)을 일신의 겹히여시

니 향천이 명을 도으스 경 갓흔 기즈을 너신 공을 헤아리며 티산이 가비압고 창
 히 엇틀지라(…)창원공주 연(年)이 빈혀 쫓기의 이르디 지금 유의한 곳 업더니 경
 이 부모 업스니 아직 혼취를 아여실지라 창원으로 경의 공을 포(褒)히리라(〈부
 장양문록〉권2, 31b 및 33a)

(3) 만조공경니 방할님의 옥모풍광으로 소년 등과호물 흠모호야 구혼(求婚)하
 리 구름 모듯호되(〈방한립전〉, 12~13면)

(1)은 <홍백화전>에서 의양군주가 딸 설유란의 짝을 구하다가 순직소의
 글을 받아보고 감탄하는 대목이다. 의양군주는 용모와 시재를 겸비한 사윗감
 을 구하지만 마음에 드는 이를 정하지 못하다가²²⁾ 순직소가 쓴 시를 보고
 흡족하여 그를 사윗감으로 점찍는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방한립전>
 의 방관주는 순직소가 외모와 문재가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는 데 더하여 과거
 에 급제하여 무공까지 세우는 인재로 그려진다. (2)는 과거에 문무 장원을
 차지한 장벽계를 천자가 관우·장비·조운 등의 무예와 이백의 문장을 겸했
 다는 말로 칭송하는 대목이다. 천자는 이어 공주의 부마로 장벽계를 간택한다.
 (3)은 아름다운 모습과 문재를 지닌 방관주에게 혼담이 쇄도한다는 내용이다.

순직소가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탁월한 시재를 선보여 의양군주의 눈에
 바로 들었다거나 장벽계와 방관주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설정은 이
 들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이는
 규중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의 소설적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라면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장
 여성은 뛰어난 자질을 지닌 흠모의 대상으로서 혼기(婚期)의 딸을 가진 부모
 라면 누구나 사위로 맞고 싶어 하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배경과 동성혼 화소는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에 있다.

이들 여성의 배필이 되는 설유란, 윤소저, 영혜빙 또한 재색(才色)을 고루
 갖춘 것으로 그려진다.²³⁾ 이들은 아름다운 용모뿐 아니라 글재주, 개결한 성

22) “소제 혼스 시급호야 글제 하나 니여걸고 인지 시험 하압기로 방방곡곡 문중지사 과거보듯
 정두하나 군주 안목 엇디흔지 송금 획정 업나이다.”(〈홍백화전〉, 254~255면)

23) 옥청관에 보든 여즈 먼목 송티 읍섯시나 죽티 덕식 그 기림과 반만 되덜 당세 제일 그 안인

품 등의 덕성을 지니고 있어 각자의 배필과 상합(相合)한다. ‘재자’(才子)와 ‘가인’(佳人)이 만나는 것은 소설의 흔한 법칙이긴 하지만 뛰어난 여성끼리 만나 이성(異性)이 결합한 부부 못지않게 화락하며 이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는 설정은 여성의 능력을 긍정하며 남성과의 결합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던져준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가능성은 남녀의 사회적 역할 혹은 남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부장 중심의 질서에 변화와 균열을 일으킨다.²⁴⁾

(1) 저 소저 정혼 아즉 업다하니 성스는 지천이요 모스는 지인이라(…)임이 계형을 위하여 당초 성의하여스니 유시무종(有始無終) 불가하다 잠시 남복 비러 입고 정혼하고 도라가면 다시 낭피 업실지라 즉시 주씨와 의논하여 남즈 관복 지어 입고 가마에 올라 노복주인으로 군주 문전 당도하여 명첩을 드리오니(<홍백화전>, 253면 및 259~260면)

(2) “(…)등도의 발각하는 임의 안면이 익고 스괴미 즈별하니 결약형제 관포의 정을 겸하니 진퇴거취와 사심을 한가지 호즈 금석상약하느니시니 사심의 변치 못 홀거시오 첩이 군주의 위엄을 두리고 부명을 조차 먼저 도라가면 당형니 관면

가 문필자지 구경하니 여중인물 또 있시랴 이 여자를 천거하여 계형 비필 턱정하면 스무어 혼 너일이요 만분지일 의리건만 의양군주 니 말 듯고 허혼(許婚)할가 오할한다 이 계교여 (<홍백화전>, 253면); (식광안모는 모란이 초로를 떨치고 홍일이 창희에 소슴갓고 직덕이 겹[겹]비하여 비희에 고집과 초여의 빈혀 품으물 감심홀지라 부모 편이하며(<부장양문록> 권1, 16a); 용화지절니 계형 중 출세하야(…)성정니 동방 혼월갓터여 기심니 철석빙옥갓터여 표표양양하야 흥진 쓰믈의 염여 낙낙하야(<방한립전>, 13~14면)

- 24) 일군의 선행 연구는 방관주를 여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남성적 혹은 가부장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방한립전』의 방관주가 남성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장시광, 앞의 글), 방관주의 가부장적 면모로 인해 방관주와 영혜병의 지기 관계가 변질된 것으로 평가하거나(김하라, 앞의 글), 『방한립전』 전반을 ‘남성화된 여성 가부장’에 의한 가문 서사로 파악하는(엄태웅, 『<방한립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제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논의들이 그러하다. 이와 반대로 방관주를 예측을 거부하고 여성적 자아를 구현한 인물로 보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바 방관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의 초점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입장에 서는 것에 있기보다는,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동성혼이 성립하는 조건이 되고, 동성혼을 통해 여성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방한립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는 ‘동성혼’ 화소의 보편적 속성으로서 강조되는 것일 뿐 『방한립전』의 서사 전반을 여성의 잠재력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는 대체로 무관하다.

(冠冕)을 더지고 조복얼 벗서 군즈기로 같이 만무혼지라 스람이 한 번 말을 너미
두 번 고치지 아니른 남녀 업느니”(〈부장양문록〉, 53b~54a)

(3) 이인(二人)니 다 웃고 또흔 다형혼문 지괴을 으더 서로 미물치 안이물 깃
거흔더라 츠후 양인니 화락하야 할임이 묘당(朝堂)의 갓다오면 너당의서 동일혼
고 외당의 손을 모호지 안이니(〈방한림전〉, 25면)

(1)은 순직소가 계일지의 이름으로 쓴 시를 보고 의양군주가 만나기를 청하
자 순직소가 남장을 결행하는 장면이다. 순직소는 거듭된 칭병(稱病)을 의심
하는 의양군주의 의혹을 해소하고 혼인을 확실히 성사시키기 위해 남자의
옷을 지어입고 찾아간다. ‘유시무종’(有始無終)이 불가하다는 것은 자신이 시
작한 일을 스스로 마무리하겠다는 결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순직소의
강한 의지와 대담함을 엿볼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상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남혼여가’(男婚女嫁)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윤리를 위반하는 것
이다. 비록 정혼자의 배필을 구한다는 명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의
결합이라는 규범으로부터 이탈하여 ‘너네’의 결합을 감행하는 순직소의 행동
은 여성이 윤리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고를
통하여 비틀고 위반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할 과단성 또한 있음을 보여준다.

(2)는 장벽계의 정체를 알게 된 부계가 장벽계와 부부로 살아가는 윤소저를
찾아가 동성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자 윤소저가 하는 말의 일부이다.
윤소저는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약속이란 남녀를 불문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혼인의 윤리를
준수하는 것보다 여성 사이의 신의와 약속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로 이성애(異
性愛)에 기반한 사회 윤리에 대한 부정으로 읽힌다. 남녀의 혼인을 관계의
중심에 두는 유교적 윤리를 부정함으로써 두 여성은 정혼자인 부계와의 혼인
을 거부하고 일시적으로나마 가부장적 질서의 바깥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의 〈방한림전〉의 두 주인
공이다. 방관주와 영혜빙은 방관주의 부모가 구물(俱沒)하고 영혜빙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모의 도움을 받으며 타인의
방해가 없는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한다. 외당(外堂)에 손님이 없이 두 사람이
내당(內堂)에서 종일 지냈다고 하는 ‘공간’의 상징처럼 두 사람은 가부장적

질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2. '일부이치'의 정당화와 부정

여성 간의 우정, 혹은 여성 간의 인정과 자발적인 천거가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합리화한다는 점은 여러 작품을 통해 지적되어 왔는데,²⁵⁾ 두 여성이 '혼인'이라는 강력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일부다처를 정당화하는 더욱 확실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대면하지도 못하고 언약의 수준에서 동성혼이 이루어진 <녀장군전>, <이대봉전>, <김희경전>과 같은 작품에서도 여성영웅과 혼인을 약속했던 여성들은 모두 남자 주인공의 아내가 된다. 왕명(王命)에 의하여 혹은 여성영웅의 권유에 의하여 남자 주인공은 기꺼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된다.²⁶⁾

남자 주인공이 동성혼 관계에 있던 두 여성을 아내로 맞는다는 설정은 <홍백화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다. <홍백화전>은 애초에 동성혼이 성사 되는 계기가 정혼자를 위한 배필 천거에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두 여성은 첫 대면에서 이미 서로에 대해 강한 호감을 느꼈던 사이이다. 순직소가 설유란의 '자태와 덕색이 당세 제일'(<홍백화전>, 17면)이라고 했던 것이 그렇고, 설유란이 계일지의 이름으로 쓴 순직소의 시를 읽고 '기쁜 빛이 눈썹 사이에 영롱'(<홍백화전>, 178면)했던 것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같이 기거하면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이이다. 이러한 호감은 설유란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순직소를 늑혼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의양군주는 이러한 설유란의 행동을 '순직소와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홍백화전>, 213면)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순직소와 설유란의 동성혼은 표면적으로는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인이며, 실제로는 순직소와 설유란의 혼인이다. 그러므로 두 여성이 계일지와 혼인하

25) <구운몽>에 나타난 일부다처의 양상을 분석한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을 예로 들 수 있다.

26) “유정은 너제라 공주로 경의 배우를 정함이 맛당하다”(〈녀장군전〉, 498면); 즉시 턱일흔야 최쇼저을 양비 다음 부인을 삼아(〈이대봉전〉, 129면); 학스 미양 리참정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마를 권하야 이소제를 천거하니(〈김희경전〉, 300면)

는 것은 동성혼의 의미를 현실화하여 설유란이 순직소, 계일지 두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논리적’ 정당성을 가진다. 두 아내가 상대의 뛰어난 자질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다. 재색을 검비한 두 아내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 수 있고, 그들 사이에 질투와 갈등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례식은 같은 날에 치러지며 세 사람은 다정하게 담소한다. 이와 같이 <홍백화전>의 동성혼은 계일지의 혼인 생활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일부이처’의 행복한 혼인 생활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홍백화전>의 동성혼이 처음부터 남성 중심의 일부다처제를 지향하는 반면 <부장양문록>의 동성혼은 표면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혼인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장벽계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거부하는 인물로서, 윤소저와의 동성혼은 정혼자 부계와의 혼인을 거부하는 수단이 된다. 두 사람은 서로가 여성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부부로 지내며 장벽계의 늑혼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함께 부계의 아내가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계일지의 아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홍백화전>의 두 여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비록 ‘일부이처’의 혼인으로 귀결되긴 하지만 <부장양문록>은 동성혼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거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두 작품의 동성혼은 유사하다. 장벽계가 윤침을 통해 윤소저와 처음 결연할 때 장벽계는 정혼자 부계의 신표인 금낭을 빙물로 건넨다. 이는 결국 이 혼인이 장벽계와 윤소저의 혼인이자 부계와 윤소저의 혼인임을 의미한다. 윤소저는 장벽계가 윤부를 떠난 이후 빙물을 지니고 수절도주(守節逃走)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장벽계를 향한 것인 동시에 부계를 향한 것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장벽계의 행동 또한 계일지와 설유란을 혼인하게 하고자 한 순직소의 행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1) 쇼계 부성의 금낭을 일신(一身)의 진여 천익(天涯)의 유락(流落)하나 즈크 몸과 갖치 뉘히 역여 이에 일르러더니 혼변 긴 생각이 갑히 밋춧뉘 윤어스고 금낭을 현왈 “쇼성이 부모 주신 배 이 금낭을 츠싱 보비를 숨아습더니 빈천한 선배

빙물할 거시 업스오니 금낭을 전호와 백연동낙(百年同樂)의 증험이 되게호오나
(…)"(<부장양문록>권1, 18b)

(2) 당소제 그 의사 김흐를 웃고 윤소제의 손을 잡고 우어 왈 "현재야 우형은
진실노 부한님의 슈견 맞든는 쇼님은 답답호고 녹녹호여 못호리니 현재 우형을
더신흐라." 눈씨 정식 더왈 "빅일지하의 한 번 말을 니고 두 번 곳치리익가 몀니
잇고 그림지 타문의 가지 못호리라."(<부장양문록>권2, 24a~24b)

장벽계가 흉노와 대결하다가 우연히 만난 선인(仙人) 진도람은 장벽계가 전생에 부계와 절친했던 벗으로 남자였으며, 또 전생에 장벽계를 흠모하여 함께 적강한 선녀가 윤씨 가문의 딸이 되었음을 알려준다.²⁷⁾ 선인의 이 말을 상기한 장벽계는 ‘동성혼’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가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혼인을 기꺼이 허락하게 된다.²⁸⁾ 그런데 이러한 승낙은 부계와 윤소저의 결연을 위한 사전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1)에서 장벽계가 소중히 간직해온 금낭을 ‘깊이 생각하고’ 빙물로 내어놓은 것은 부계에게 자신이 아닌 배필을 주선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낭을 백년동락의 증험으로 삼자고 한 말 또한 표면적으로는 자신과 윤소저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빙물의 본래 주인이 부계임을 생각하면 역시 부계와 윤소저의 관계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장벽계가 윤참정의 집을 떠나면서 금낭을 가져가려다 그만두는 대목도 두 사람의 결연을 수용하는 장벽계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⁹⁾ (2)에서는 형제의 의를 맺기로 한 후 장벽계가 윤소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부계와 혼인하라고 말하는 대목으로, 여기서 장벽계가 금낭을 건넨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부장양문록>의 동성혼 또한 복잡한 경로를 거쳐 세 사람을 ‘일부이치’로 묶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여성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27) “또 봉녀선익 군의 풍치 의귀를 흠선(欽羨)호여 군을 조족 윤가(尹家)의 여즈 되엿느니 타 일 천추미담(千秋美談)이 되리라”(<부장양문록>권1, 10a)

28) ‘전생’의 설정을 바탕으로 동성혼은 서사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방한림전』의 동성혼이 정당화되는 방식과 일치한다. 두 작품에 나타난 동성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의 V장 3절 참조.

29) “문을 날식 윤소저의 빙물을 츠즈려 하다 심니의 다시 생각호니 그 빙물인즉 부가의 귀무리니 츠즈미 또한 불가호여 곳치고”(<부장양문록>권1, 36b)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아내를 얻을 수 있었던 <홍백화전>의 계일지와 달리 부계는 두 여성에게 술하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다. 혼인 이후에도 세 사람의 관계는 부계가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기보다는 종종 부계와 장벽계가 한 사람의 아내를 거느린 형국으로, 조정에 출사한 장벽계와 부계 두 사람을 윤소저가 내조하며 생활한다.³⁰⁾ 이로 볼 때 <홍백화전>과 <부장양문록>은 여주인공이 시도한 동성혼에 의해 정혼자와 또다른 여성의 혼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이처’가 완성되는 공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가장 중심의 혼인 제도에 대한 용인과 거부라는 주제의 이질성으로 인해 전자는 남성을 중심으로 한 두 여성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후자는 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 한 남성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이처라는 혼인의 형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 간의 관계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끝으로 <방한림전>은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한 두 여성이 평생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설정이므로 동성혼이 일부다처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점과는 관련이 없는 작품이다. 오히려 <방한림전>에는 비록 여성 간의 관계이지만 ‘배타적’ 애정의 면모가 강조되어 있다.³¹⁾ <방한림전>은 동성 간의 혼인, 양자 입양 등의 파격적인 설정을 포함하면서도 여성영웅소설다운 서사구조의 열개를 유지하고 있다. 남장 여성이 등과(登科)하고 출전하며 동성과 혼인하고 자신의 정체를 천자에게 밝힌다는 점, 또 자손이 후대에 번성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방한림전>의 작자는 여성영웅소설의 문법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동성혼 화소를 작품에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여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컨더 양위 주인은 계교을 생각흐스 진짓 군즈을 으드스 황영의 즈미 갖트
시미 올홀가 혼난니(<방한림전>, 38면)

30) “부부 녹봉을 윤씨를 맞겨 등계로 소납하여 스도와 당후를 맞들게 하고”(〈부장양문록〉권3, 48b)

31) 방시랑의 풍치와 물망을 흠복하야 지취 구혼난니 너역부절하니 사랑이 심분 괴로워 밀막어 왈 “쇼성니 고독 일신니 변화의 뜻시 읍신니 한 처조로 법을 적키고 종신히라 하난니 웃지 타염이 잇시릿고”(〈방한림전>, 26면)

인용문은 방관주를 어릴 때부터 돌보아 왔으며 방관주의 본적상소 이전까지 두 사람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유모의 말로서, 작자는 동성혼의 통상적인 귀결이 ‘일부이처’라는 점을 이 말을 통해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해본다. 뒤집어 말하면 <방한림전>은 두 여성이 이탈했던 가부장적 질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방관주와 영혜빙 사이에 어떠한 남성도 개입하지 않음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었다. 동성혼의 귀결이 두 사람만의 해로와 천상에서의 재회라는 점은 <방한림전>이 <부장양문록>보다 조금 더, <홍백화전>보다 훨씬 더 당대의 제도와 윤리에서 바깥에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홍백화전>이 일부다처의 가부장적 질서를 미화하고, <부장양문록>이 벗어나기 어려운 가부장적 질서의 구심력을 표현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 <방한림전>은 그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을 지향하고 있다.

3. ‘앵혈’과 독자의 윤리적 감각

앵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의 소설적 표지이다. 앵혈은 국문 장편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로서, 17세기 후반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앵혈은 여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대중성이 강한 국문 단편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이다. 영웅소설 혹은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단편소설에서는 앵혈 모티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동성혼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마찬가지이다. 예외가 되는 작품은 <방한림전> 정도인데, 이 작품은 약 2만 자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지만 3회의 장회체(章回體)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현전하는 이본이 3종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림전>에는 모두 앵혈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우 시비 왕니허며 실낭 기식 살펴보니 나지면 친실타가 밤이면 셔오하니 소저 유모 마음 조신 둘디업서 침방 시비 즉시 불너 귀을 디고 묻는 말리 “실낭 소저

32)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61면.

무슨 슈작 은근턴야” 저 소비 더답혔다 “나지면 친밀하고 밤이면 각침(各寢)인 덧혀 더이다”(…)그날 밤에 걸기 일 슈 생각혀 화전지에 기록하고 필승 우에 노으며 불승슈터혀거날 순소저 고인혀여 퍼여보니 그 글에 하여시되 “달은 어둡고 향기 스라진 반야중에/원앙이 서로 꽃떨기에 깃드리다가/앗참날 단장혀는 거울을 보니/ 팔독 우에 일점홍이 완연터라” 하였거날 순소저 일변 우심을 진정하며 일변 민망혀야 글노 화답한다 “촉불 잡고 오경야에 일도록/병든 나위 탐화 구경 무심하다/동군은 너의 거덜오닌 기약을 기다리어/광풍을 모라 일점홍을 파치 말나”(〈홍백화전〉, 265~266면)

〈홍백화전〉에서 신흔인 두 사람이 낮에만 친밀하고 동침하는 기색이 없자 의양군주는 딸을 조용히 불러 신랑이 잠자리를 따로 하는 이유를 알아오게 한다. 이에 설유란은 시를 써서 의문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설유란이 원앙이 함께 꽃떨기에 깃들이듯 사랑을 나눌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연유가 무엇이나고 문자 순직소는 충동에 휩쓸려 성급하게 앵혈을 없애지 말자고 답한다. 이본에 따라서는 의양군주가 직접 설유란의 앵혈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데, 비록 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 되어있긴 하나 앵혈은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1) 즈는 용피 더욱 괴이흔지라 크게 사랑혀여 당쇼제를 생각고 심회 잘못 어저러 위 그 겹히 잠화혀여 당후의 손을 잡고 누어 비상을 어로만지미 옥비의 잉혈이 완연히니 더경혀여 그 믹후를 보니 의심업슨 여믹이라(〈부장양문록〉권2, 43a)

(2) “(…)다만 그디 당후로 금술위지(琴瑟友之) 현연지 일연이라 당후 풍치 운우의 조화를 가져 그디 비상의 홍점이 흔적 업슬지니 혼 번 쾌히 본 후 너 허물은 일만 번 죽어도 우음을 감수히리라” 언필의 나아가 소저의 옥수를 잡고 사미를 거더 비상 잉혈을 보고저 하니 소저 놀납고 일이 정히 위급하나 장차 피혈 길 업논지라(〈부장양문록〉권2, 53a)

〈부장양문록〉에서는 두 여성의 정혼자에 해당하는 부계에 의해 앵혈이 드러난다. (1)은 장벽계와 부계가 대취(大醉)하여 쓰러져 함께 자다가 부계가 장벽계의 앵혈을 우연히 보게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의 앵혈은 장벽계의 정체를 드러내는 동시에 장벽계와 윤소저 두 사람 사이에 ‘동침’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2)는 장벽계의 정체를 알게 된 부계가 윤소저를 겁박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밤늦게 윤소저를 찾아간 대목이다. 부계는 장벽계가 여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윤소저의 앵혈이 없어졌으리라고 짐짓 말하는데, 이는 작품의 내용과는 별개로 여성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에 해당한다. 장후[장벽계]의 풍채가 운우의 조화를 가졌다는 표현 또한 구체적인 육체를 연상시키는바 이 대목 역시 여성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소설 밖의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윤소저는 소매를 떨쳐 앵혈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비록 장벽계의 앵혈이 부계에게 발각되어 두 사람 사이의 ‘동침’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나 독자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보다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1) 신니 규중녀자로 몸을 현현(顯顯)히 가져 예법을 훗터난지라 감히 비상(臂上) 주표(朱標)로써 비압고 괴망(欺罔)호 되(罪)을 청하나다 언과의 광슈(廣袖)를 밀고 옥비(玉臂)의 주표를 너여 어람히시기를 바랄신(<방한림전>, 67면)

(2) 서평후 이날이야 여서(女婿)의 진가를 알고 디경상흔(大驚傷魂)하야 여아 팔을 썬여 보니 옥비 위회 잉도 일미(一枚) 완연하야 의의(猗猗)이 불근 밋치 감(減)치 안야신나(<방한림전>, 70면)

<방한림전>에서 앵혈이 등장하는 장면은 다소 생경한 느낌을 준다. (1)에서 방관주는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정체를 천자에게 밝히는데, 이때 팔을 걷어 앵혈을 내보인다. (2)에서 영혜빙의 앵혈은 방관주의 정체를 알게 된 부친이 딸의 팔을 걷어봄으로써 드러난다. 작품 속에 등장한 앵혈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해로했지만 성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았음을 애써 보여주는 듯하다. 이어 천자가 방관주를 ‘열녀정부’라고 칭하는 것³³⁾ 또한 저간의 방관주의 행적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순결에 대한 관심과 여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정으로 읽힌다.

세 작품에 나타나는 앵혈은 여성 간의 혹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

33) “경은 만고 영웅이요 열녀정부라”(<방한림전>, 68면)

한 강한 금기가 존재했다는 징표이다. 앵혈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성의 부부가 동성애자임을 부정하는 장치일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역설적으로 동성(同性)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여성 사이에는 신체의 접촉, 애정의 표현, 동침 등이 남성 사이에서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당대의 많은 독자들은 동성에는 금기로 여기면서도 조선시대의 여성들 간에 존재했던 친밀한 관계의 양상과 정체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 세 작품에 나타난 동성혼의 양상과 의미를 탐구해 보았다. 여성영웅소설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던 동성혼은 이 세 작품에서는 서사를 결구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세 작품에 등장하는 동성혼의 소설적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동성혼의 주인공인 여성들은 뚜렷한 주관, 준수한 외모, 문무의 실력 등을 갖춘 인물로서 동성혼을 통해 주체성을 발현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동성혼은 두 여성의 친밀한 관계를 한 남성에게 귀속시키는 기능을 하여 일부다처를 합리화한다. 다만 <방한립전>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동성혼은 가부장제의 바깥에서 남성과의 결합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셋째, 앵혈이라는 상징물은 동성 간의 결합에서 성애를 소거함으로써 당대 독자의 윤리적 감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세 작품에 나타나는 동성혼은 공통점도 없지 않지만 차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부장양문록>을 사이에 두고 <홍백화전>은 보다 ‘전통적’인 위치에, <방한립전>은 ‘혁신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성혼 소재의 활용 정도나 주제의 진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한립전>은 우리

소설사 전체에서도 예외적인 특이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 작품의 계통적인 특성과 창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상의 의미를 사적(史的)인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설 속의 동성혼이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동성애와 특수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 또한 더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³⁴⁾ 이 문제의 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동성애가 당대의 이성애중심주의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환기하였는지, 여타의 역사적 사례와 같이 조선 사회가 남성 동성애에 비해 여성 동성애에 더 관대하였는지,³⁵⁾ 남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용어가 여성 동성애를 가리키는 용어보다 다양하게 존재하고, 회소하기는 하나 문학 작품에도 남성 동성애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³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세 작품에 나타난 여성들이 ‘전적인’ 이성애와 동성애를 각각 한 끝으로 하는 ‘연속체’(continuum)의 어딘가에 유동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³⁷⁾ 상기한 문제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본고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고자 한다.

34)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66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18에서는 남성 여성과 남성이 벗으로 사귄 때 동성애적 감성을 유발하는 장면에 대해 고찰하였다.

35) 서양의 중세에서 20세기 초까지 여성 동성애로 간주되는 대부분의 행위는 용인되고 무시되거나 장려되기까지 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낭만적인 우정이나 사랑의 말은 물론이고 입맞춤이나 포옹, 동침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노라 칼린,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심인숙 역, 책갈피, 1996, 111~124면 참조) 또한 20세기 초반 한국에서도 성적적인 남성 동성애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취급된 반면 탈성화(脫性化)된 여성 동성애는 담론화 되었는데, 이는 여성 동성애에 대한 상대적 관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그러나 근대 이전의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만큼 선입견을 배제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6) 강문중, 『전통시대 同性愛 연구』, 『영주어문연구』 제30집, 영주어문학회, 2015.

37) 메릴린 엘름·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앞의 책, 169면.

참고문헌

1. 자료

- <김희경전>,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7.
<이대봉전>, 박순호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39, 昨晨社, 1986.
<녀장군전>(정수정전), 世昌書館, 1916.
<방한림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소장본.
김광순 역주, 『숙영낭자전·홍백화전』, 박이정, 2015.
작자미상, <창선감의록>, 이지영 역, 문학동네, 2010.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2. 단행본

- 노라 칼린, 심인숙 역,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책갈피, 1995.
메릴린 엘름·테리사 도너번 브라운, 정지인 역, 『여성의 우정에 관하여』, 책과함께, 2016.

3. 논문

- 강문종, 「전통시대 同性愛 연구」, 『영주어문연구』 제30집, 영주어문학회, 2015, 5~37면.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6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189~216면.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면.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논총』 제56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17~141면.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223~252면.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의 변모」, 『관악어문연구』 제27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면.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31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56~193면.
서신혜, 「개인의 아픔으로 읽는 <방한림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75~300면.

- 신지연,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제45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265~292면.
- 엄태웅, 『<방한립전>에 나타난 가부장의 부재와 재현의 양상』, 『우리어문연구』 제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89~117면.
- 이지하, 『육망주체로서의 방관주와 자기애의 미덕: <방한립전>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모색』, 『국제어문』 제82집, 국제어문학회, 2019, 219~243면.
- 장시광,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제6집, 국문학회, 2001, 253~277면.
- 조현우, 『<방한립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면.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액혈화소의 서사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제2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84면.
-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윤희, 『<홍백화전>에 나타난 인물 관계와 우정』, 『우리문학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111~135면.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Marriage Between Women in Korean Classical Novels

Choi, Ji-nyeo

The motif of the same-sex marriage in Korean classical novels, which is often centered on marriages between women, can be said to be an incomplete marriage in that disguised woman and other women have a temporary marriage relationship. Same-sex marriages are often seen in the heroine novels and family novels, especially in the three works of *Hongbaekuhadon*, *Bujangyangmunrok* and *Banghanlimjeon*. Same-sex marriage motifs make up a large portion a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three works. The meaning of same-sex marriage in the three works can be summed up in three ways: First, the women of same-sex marriage, who are good-looking and has ability of 'pen' and 'sword' show their ability and subjectivity in pushing for marriage. Second, same-sex marriage plays a role in widening the narrative, increasing interest, but ultimately streamlining polygamy. However, in *Banghanlimjeon*, there is no male protagonist, so same-sex marriage is a mechanism that denies the union with men outside the patriarchal system. Third, the symbolism of the aenghyeol-a sign of chastity indirectly shows the ethical sensibility of readers by wiping out sexuality in the union of homosexuals. In terms of the degree of use of same-sex marriage materials and the initiative of the subject, the three works generally form a spectrum in the order of *Hongbaekuhadon*, *Bujangyangmunrok* and *Banghanlimjeon*.

keywords: Same-Sex Marriage, *Hongbaekuhadon*, *Bujangyangmunrok*, *Banghanlimjeon*, aenghyeol, female transvestite, heroine, friendship, homosexuality, patriarchy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